

이사회특성이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CSR)과 조세회피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김경화(경북대) · 권순창(경북대)

I. 서 론

최근 지속가능경영(CSM: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의 핵심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CSR은 윤리적 책임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Du, Bhattacharya, and Sen, 2011).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목표로 하던 기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사회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CSR활동은 많은 경우에서 인적, 물적, 재무적 자원을 소비하는 비용을 수반한다(Friedman, 1970; Wright & Ferris, 1997; Vance, 1975). 따라서 기업이 윤리적 차원에서만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CSR활동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적의 CSR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CSR활동을 계획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노력을 효율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경영자는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는 현금의 유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는 것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조세비용뿐만 아니라 비조세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Scholes & Wolfson, 1992). CSR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이 조세회피로 인한 탈세를 하게 된다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받는 충격은 더욱 클 것이다. 반면 CSR활동이 소극적인 기업은 조세회피로 인한 탈세를 한다면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인 기업에 비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충격은 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CSR활동의 수준과 범위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사항으로서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데, 이 때 경영자는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배구조인지에 따라 자원배분 의사결정인 CSR활동 방식과 범주를 결정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CSR 활동이 조세회피 관계에 있어 이사회 특성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특성을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비율로 측정한 독립성과 이사회 회의 개최횟수로 측정한 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2.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조세회피

CSR은 일반적으로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환경 등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이상의 자발적인 기업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국찬표와 강운식, 2011)때문에 사회적 책임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탈세사실이 밝혀졌을 때 더 심한 패널티를 가한다(Dean, 2004). Watson(2011)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CSR점수가 낮은 그룹은 중간 그룹에 비해 공격적 조세회피성향을 보이고, Grant and Roman(2011)은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높은 사회적 책임 수준의 공개는 낮은 조세회피수준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 기업의 CSR 활동은 조세회피와 음(-)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2.2. 이사회특성의 조절효과

기업의 CSR활동은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그 방법과 수준이 결정되므로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국찬표와 강운식, 2011). 이는 경영자가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을 남용하여 CSR활동을 실행할 경우 주주들의 비용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Jensen & Meckling, 1976; Stulz, 1990). 즉, 개인의 명성 제고와 같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CSR활동비용을 지출하는 유인이 있다(Barnea & Rubin, 2006). 또한,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최고 경영진과 심하게 공모하는 형태로 이사회를 운영하고(Crystal, 1991), 사외이사들이 대부분 대주주나 현직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있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낮다(이한득 외, 2001).

[가설 2] 이사회의 독립성이 클수록 기업의 CSR 활동과 조세회피 간의 음(-)의 관계가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이사회의 활동성이 많을수록 기업의 CSR 활동과 조세회피 간의 음(-)의 관계가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III. 연구설계

3.1. 표본선정

연구대상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며, 표본기간은 조세회피(ExpETR, CashETR)를 추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으로 하였다. 표본선정과정은 <표 3-1>과 같으며, 표본선정에서 재무자료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금융업과 12월 결산이 아닌 기업, K-IFRS를 적용한 기업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1,819개 표본 중 CSR활동기업 371개를 선정하였고, 이들 표본과 동일연도, 동일산업에 속하면서 기업규모가 유사한 742개 표본을 대응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대상이 된 최종표본은 1,113개 기업이다. 대응표본은 동일산업과 규모효과까지 고려되고 있어 2배수로 한정하였다.

<표 3-1> 표본선정과정

구분	표본 수
연구기간(2005-2010)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와 Kis-Value의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상장된 12월 결산인 제조기업	2,421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2009-2010)	(32)
재무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한 기업	(450)
이상치	(120)
전체 표본	1,819
CSR활동기업	371
대응 기업	742
최종표본	1,113

3.2.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CSR 활동이 조세회피 간의 음(-)의 관계에 있어 이사회 특성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설 1]에서 제시된 기업의 CSR 활동여부와 조세회피 간의 음(-)의 관계가 나타날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 1)을 설정하였다. [가설 2]는 기업의 CSR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이사회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 2)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측정치는 유효법인세율(ExpETR),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을 사용하였고, [가설 1]이 지지되기 위해 (모형 1)의 β_1 은 유의한 음(-)의 값이 예상되며, [가설 2]와 [가설 3]이 지지 되기 위해 (모형 2)의 β_4 , β_5 은 유의한 양(+)의 값이 예상된다.¹⁾ 선행연구에 따라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 기업규모(SIZE), 비유동부채비율(LEV), 영업활동현금흐름(OCF), 투자수익률(ROA), 유형자산집중도(PPE), 무형자산(INT),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비율(MTB), 경영자 소유기업 여부(OCDE), 기업연령(Ln(AGE)),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 절대값(ABSDE) 총자산변화율(Δ ASSET)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1) 상호작용 효과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을 이용하여 최소화 하였다.

$$TAXAVOID_{it} = \beta_0 + \beta_1 CS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OCF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_{it} + \beta_8 MTB_{it} + \beta_9 OCD_{it} + \beta_{10} \ln(AGE)_{it} + \beta_{11} ABSDA_{it} + \beta_{12} \Delta ASSET_{it} + \sum IND_{it} + \sum YEAR_{it} + \varepsilon_{it} \quad (\text{모형1})$$

$$TAXAVOID_{it} = \beta_0 + \beta_1 CSR_{it} + \beta_2 BOARDOUT_{it} + \beta_3 BOARDMEET_{it} + \beta_4 CSR_{it} \times BOARDOUT_{it} + \beta_5 CSR_{it} \times BOARDMEET_{it} + \beta_6 SIZE_{it} + \beta_7 LEV_{it} + \beta_8 OCF_{it} + \beta_9 ROA_{it} + \beta_{10} PPE_{it} + \beta_{11} INT_{it} + \beta_{12} MTB_{it} + \beta_{13} OCD_{it} + \beta_{14} \ln(AGE)_{it} + \beta_{15} ABSDA_{it} + \beta_{16} \Delta ASSET_{it} + \sum IND_{it} + \sum YEAR_{it} + \varepsilon_{it} \quad (\text{모형2})$$

<dependent variable>

$TAXAVOID_{it}$: t년도 조세회피 측정치

$ExpETR$ = Ayers et al.(2009)의 누적 유효법인세율 $\times (-1)$

$CashETR$ = Dyreng et al.(2008)의 누적 현금유효법인세율 $\times (-1)$

<test variables>

CSR_{it} : t년도 경제정의지수(KEJIIndex) 발표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BOARDOUT_{it}$: t년도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사외이사 수 / 총 등기이사 수)

$BOARDMEET_{it}$: t년도 이사회개최횟수(=ln(1+이사회개최횟수))

$BOARDOUT \times CSR_{it}$: t년도 $BOARDOUT$ 과 CSR 의 상호작용변수

$BOARDMEET \times CSR_{it}$: t년도 $BOARDMEET$ 과 CSR 의 상호작용변수

<control variables>

$SIZE_{it}$: t년도 기업규모(=ln(총자산)) LEV_{it} : t년도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 / 기초총자산)

OCF_{it} : t년도 영업활동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기초총자산)

ROA_{it} : t년도 투자수익률(=세전이익 / 기초총자산)

PPE_{it} : t년도 유형자산집중도(=(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 / 기초총자산)

INT_{it} : t년도 무형자산 / 기초총자산 MTB_{it} : t년도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 비율

OCD_{it} : t년도 경영자 소유기업 여부(경영자 지분율이 5%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n(AGE)_{it}$: t년도 기업연령(=ln(1+(해당연도-설립연도))

$ABSDA_{it}$: t년도 Kothari et al.(2005)의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 절대값

$\Delta ASSET_{it}$: t년도 총자산변화율(=(기말총자산-기초총자산) / 기초총자산)

$\sum IND$: 산업별 더미변수 $\sum YEAR$: 연도별 더미변수 ε_{it} : 잔차항

IV. 실증분석결과

4.1. 기술통계량 및 차이검증

<표 4-1>의 Panel A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세 비용을 기준으로 측정한 누적 유효법인세율(ExpETR)의 평균(중위수)은 -0.208(-0.235)이고, 법인세 등 부담액을 기준으로 측정한 누적유효법인세율(CashETR)의 평균(중위수)은 -0.168(-0.198)이다. 이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ashETR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CSR활동 기업 1개당 대응기업 2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CSRD평균이 0.333로 나타났으며 대응기업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표 4-1>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차이검증

Panel A : 전체표본 (N = 1,113)					
Variables	Mean	Q1	Median	Q3	Std.Dev.
ExpETR	-0.208	-0.271	-0.235	-0.170	0.109
CashETR	-0.168	-0.263	-0.198	-0.101	0.150
CSRD	0.333	0.000	0.000	1.000	0.472
BOARDOUT	2.014	1.609	2.079	2.565	0.941
BOARDMEET	2.497	2.079	2.485	2.890	0.589
SIZE	26.445	25.489	26.092	27.106	1.376
LEV	0.114	0.041	0.086	0.156	0.097
OCF	0.070	0.020	0.065	0.115	0.080
ROA	0.080	0.035	0.070	0.114	0.065
PPE	0.209	0.122	0.186	0.267	0.118
INT	0.007	0.000	0.002	0.008	0.015
MTB	1.079	0.545	0.796	1.276	0.883
OCD	0.458	0.000	0.000	1.000	0.498
Ln(AGE)	3.437	3.367	3.584	3.784	0.624
ABSDA	0.040	0.012	0.030	0.057	0.037
ΔASSET	0.122	0.022	0.088	0.175	0.175

Panel B : CSR활동기업과 비활동기업					
Variables	CSR활동기업(N=371)		CSR비활동기업(N=742)		T-test
	Mean	Std.Dev.	Mean	Std.Dev.	t - value
ExpETR	-0.183	0.132	-0.160	0.158	-2.476 ***
CashETR	-0.193	0.105	-0.179	0.119	-2.069 **
BOARDOUT	2.137	1.023	1.953	0.892	2.937 ***
BOARDMEET	2.437	0.531	2.526	0.614	-2.510 **
SIZE	26.719	1.463	26.308	1.310	4.573 ***
LEV	0.099	0.088	0.121	0.100	-3.735 ***
OCF	0.079	0.073	0.065	0.083	2.876 ***
ROA	0.084	0.058	0.078	0.069	1.409
PPE	0.214	0.114	0.206	0.119	0.952
INT	0.008	0.014	0.007	0.015	0.653
MTB	1.073	0.808	1.081	0.918	-0.158
OCD	0.410	0.492	0.482	0.500	-2.312 **
Ln(AGE)	3.593	0.406	3.359	0.696	7.049 ***
ABSDA	0.035	0.033	0.043	0.039	-3.427 ***
ΔASSET	0.109	0.140	0.128	0.189	-1.882 **

1) *, **, *** 는 각각 10%, 5%, 1%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변수정의는 연구모형 참조

Panel B는 CSR활동기업과 비활동기업 간의 각 변수별로 평균차이 검증결과이다. CSR활동 기업은 비활동기업에 비해 조세회피(ExpETR, CashETR)가 낮게 나왔으며, 그 차이는 1%, 5%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CSR활동기업이 조세회피를 덜 한다는 결과로 [가설 1]이 지지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 후의 검증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제변수의 결과는 CSR활동기업이 비활동기업에 비해 기업규모(SIZE)가 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OCF)이 높으며, 기업연령(Ln(AGE))이 높다. 또한 부채비율(LEV)이 낮고, 경영자 소유기업(OCD)이 적으며, 재량적 발생액(ABSDA)과 총자산변화율(ΔASSET)이 낮다.

4.2. 상관관계분석

<표 4-2>는 주요변수 간 Pearson 상관관계 결과이다. 조세회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ExpETR과 CashETR은 0.548로 조세회피 측정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BOARDOUT는 ExpETR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CashETR은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BOARDMEET은 ExpETR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CashETR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조세회피 변수들과 SIZE와 ABSDA, Δ ASSET는 부분적으로 양(+)의 관계가 나타나고, LEV, PPE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ROA, OCD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 주요변수 간 Pearson 상관관계

Variables	ExpETR	CashETR	CSR	BOARDOUT	BOARDMEET	SIZE	LEV	OCF	ROA	PPE	INT	MTB	OCD	Ln(AGE)	ABSDA	Δ ASSET
ExpETR	1															
CashETR	0.548**	1														
CSR	-0.060**	-0.070**	1													
BOARDOUT	0.017	0.072**	0.092**	1												
BOARDMEET	-0.098**	-0.003	-0.072**	0.022	1											
SIZE	0.032	0.161***	0.141***	0.439**	0.052*	1										
LEV	0.098**	0.239***	-0.107**	0.120**	0.205***	0.414***	1									
OCF	0.027	-0.032	0.082**	0.061**	-0.067**	0.173**	-0.075**	1								
ROA	-0.093**	-0.091**	0.040	0.082**	-0.023	0.098**	-0.132**	0.439**	1							
PPE	0.233**	0.066**	0.029	-0.013	0.010	0.272**	0.315**	0.178**	-0.088**	1						
INT	0.027	-0.045	0.020	0.100**	-0.043	0.168**	0.148**	0.072**	0.046	0.070**	1					
MTB	0.009	-0.011	-0.005	0.075**	-0.020	0.215**	0.164**	0.259**	0.275**	0.131**	0.272**	1				
OCD	-0.120**	-0.095**	-0.069**	-0.016	0.009	-0.252**	-0.098**	-0.049*	0.056*	-0.179**	-0.027	-0.087**	1			
Ln(AGE)	-0.006	0.047	0.176**	0.086**	-0.001	0.070**	0.001	-0.119**	-0.137**	-0.007	-0.045	-0.164**	0.076**	1		
ABSDA	0.070**	0.027	-0.097**	0.035	0.066**	-0.022	0.055*	0.033	0.131**	0.000	0.015	0.066**	0.009	-0.147**	1	
Δ ASSET	0.007	0.161**	-0.051*	0.084**	0.092**	0.120**	0.331**	0.096**	0.331**	0.116**	0.116**	0.147**	-0.004	-0.101**	0.141**	1

1) *, **, *** 는 각각 10%, 5%, 1%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변수정의는 연구모형 참조

4.3. 회귀분석결과

<표 4-3>는 CSR 및 CSR에 따른 이사회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F-Value가 각각 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모형 설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Model 1은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여부(CSRD)를 포함한다. Model 1의 분석결과, CSRD는 조세회피(ExpETR과 CashETR)와 10%, 5%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업의 CSR 활동이 조세회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Model 2와 Model 3은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특성(BOARDOUT, BOARDMEET)과 상호작용변수(CSRD*BOARDOUT, CSRD*BOARDMEET)가 포함된 결과이다. 분석결과, Model 3에서 CSRD는 조세회피(ExpETR과 CashETR)와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CSRD*BOARDOUT은 ExpETR에서만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클수록 기업의 CSR 활동과 조세회피 간의 음(-)의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 2]를 기각하는 결과이다. 또한 CSRD*BOARDMEET은 ExpETR과 CashETR에 대해 각각 10%,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이사회의 활동성이 많을수록 기업의 CSR 활동과 조세회피 간의 음(-)의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사회특성이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CSR)과 조세회피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표 4-3> 회귀분석

Variables	ExpETR			CashETR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Intercept	-0.041 (-0.542)	0.072 (0.826)	0.101 (1.143)	-0.357*** (-3.533)	-0.329 (-2.786)	-0.288 (-2.399)
CSR	-0.011 (-1.591)*	-0.013 (-1.841)	-0.012 (-1.688)	-0.017 (-1.819)	-0.018 (-1.925)	-0.016 (-1.759)
BOARDOUT		0.015 (2.577)	0.023 (3.433)		0.004 (0.513)	0.010 (1.092)
BOARDMEET		-0.021 (-3.709)	-0.027 (-4.142)		-0.017 (-2.281)	-0.029 (-3.309)
CSR*BOARDOUT			-0.015 (-2.175)			-0.008 (-0.881)
CSR*BOARDMEET			0.020 (1.629)			0.042 (2.552)
SIZE	-0.009 (-3.135)***	-0.014 (-4.016)***	-0.014 (-4.083)***	0.006 (1.540)	0.005 (1.073)	0.005 (1.085)
LEV	0.085 (2.026)**	0.117 (2.777)	0.119 (2.829)	0.269*** (4.767)	0.292 (5.094)	0.292 (5.097)
OCF	0.036 (0.763)	0.026 (0.567)	0.026 (0.560)	0.015 (0.232)	0.009 (0.137)	0.008 (0.131)
ROA	-0.082 (-1.286)	-0.080 (-1.278)	-0.082 (-1.301)	-0.234*** (-2.742)	-0.235 (-2.749)	-0.243 (-2.845)
PPE	0.183 (5.790)***	0.182 (5.793)***	0.188 (5.970)***	-0.069 (-1.607)	-0.072 (-1.691)	-0.067 (-1.570)
INT	0.121 (0.525)	0.040 (0.173)	0.058 (0.252)	-0.738** (-2.381)	-0.782 (-2.517)	-0.750 (-2.420)
MTB	0.002 (0.482)	0.002 (0.448)	0.002 (0.470)	-0.003 (-0.445)	-0.003 (-0.480)	-0.002 (-0.435)
OC	-0.025 (-3.673)***	-0.027 (-3.889)***	-0.027 (-3.950)***	-0.024*** (-2.544)	-0.024 (-2.570)	-0.024 (-2.565)
Ln(AGE)	0.004 (0.643)	0.003 (0.477)	0.002 (0.390)	0.005 (0.728)	0.005 (0.709)	0.005 (0.644)
ABSDA	0.192 (2.150)**	0.208 (2.336)	0.203 (2.281)	0.057 (0.474)	0.073 (0.605)	0.078 (0.650)
ΔASSET	-0.013 (-0.603)	-0.011 (-0.522)	-0.013 (-0.602)	0.126*** (4.332)	0.128 (4.414)	0.127 (4.389)
Σ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ΣYEAR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R ²	0.103	0.117	0.122	0.139	0.142	0.146
F-Value	4.656***	5.001***	4.959***	8.127***	5.958***	5.868***
Sample	1,113	1,113	1,113	1,113	1,113	1,113

1) *, **, *** 는 각각 10%, 5%, 1%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변수정의는 연구모형 참조

4.4. 강건성분석

<표 4-4>은 조세회피(ExpETR, CashETR)에 대한 CSR과 BOARDOUT 및 BOARDMEET의 상호작용효과 검증에 대한 분석으로 수행한 Sub Group Analysis 결과이다.²⁾ 분석결과, BOARDOUT가 높은 집단의 R²이 낮은 집단의 R²보다 ExpETR과 CashETR에 5%,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BOARDOUT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CSR가 ExpETR, CashETR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BOARDMEET는 낮은 집단의 R²이 높은 집단의 R²보다 ExpETR과 CashETR에 1%,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BOARDMEET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CSR가 ExpETR, CashETR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변수 간 상대적 크기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설명력을 통해 살펴보는 방법과 관심 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전자의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조절변수를 중위수를 기준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설명력(R²)이 차이가 있는지 Fisher's Z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박종일 외, 2012; 구동모 2013).

<표 4-4> Sub Group Analysis 결과(N=1,113)

R ² 크기 조절변수		ExpETR	CashETR
BOARDOUT	높은집단(N=600)	0.233	0.265
	낮은집단(N=513)	0.125	0.113
Fisher's Z		1.85**	2.62***
BOARDMEET	높은집단(N=597)	0.114	0.129
	낮은집단(N=516)	0.249	0.224
Fisher's Z		-2.35***	-1.63**

1) *, **, *** 는 각각 10%, 5%, 1%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변수정의는 연구모형 참조

V. 결 론

본 연구는 기업의 CSR 활동이 조세회피 간의 관계가 이사회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기업의 CSR활동이 조세회피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그 부정적 효과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이사회 특성으로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비율로 측정된 독립성과, 이사회 회의 개최 횟수로 측정한 활동성이 어떠한 조절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SR활동을 하는 기업은 비활동기업에 비해 조세회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SR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이사회독립성이 크면 CSR활동이 조세회피에 부정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회 경영활동의 최종의결기구로서 경영자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하며, 이사회 내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의 역할강화를 통해 조세회피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 편익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CSR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사회 활동성이 크면 CSR활동이 조세회피에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명성 제고와 같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CSR활동비용을 지출하는 유인이 있다(Barnea & Rubin(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조세회피 측정에 대한 측정 오차의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정확하고 세심한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의 변수 중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 독립성과 활동성만을 분석에 포함하였지만 대주주지분율,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감사위원회 등 다양한 지배구조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면 연구결과의 의미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KEJI의 사회적 책임 대용 여부일 것이다. 현재, 사회적 책임의 측정치로 사용되는 DJSI Korea(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KRX SRI(한국거래소 SRI지수), KEJI(경제정의지수) 중 KEJI가 다른 대용치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지수의 평가기준이 바뀌게 되면 연구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KEJI지수 자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 고 문 헌

- Aupperle, K., Carroll, A. and Hatfield, J. 1985.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fit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8(2): 446~463.
- Barnea, A. and A. Rubin. 200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Conflict Between Shareholders. Working paper.
- Barnea, A. and Rubin, A., 200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Conflict between Shareholders. Working Paper,
- Carroll, A. B. 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497~505
- Carroll, A. B.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
- Crystal, G. S. 1991. Why CEO Compensation Is So High,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4(1), pp.9-29.
- Desai, M., A.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145~179.
- Desai, M., A. and D. Dharmapala. 2009.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3): 537~546.
- Friedman, M. 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 Grant, R. and Roman. L. 201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ggressiveness. working paper.
- Jensen M. and W.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ment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305~360.
- L. Watson. 201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ggressiveness: An Examination of Unrecognized Tax Benefit. Working paper.
- Manzon, G. B. Jr and G. A. Plesko. 2002.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Measures of Income. *Tax Law Review* 55(2): 175~214.
- Pava M. and J. Krausz. 1996. Th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3): 321~357.
- Roman, R. S. Hayibor, and B. R. Agle.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Financial Performance: Repainting a Portrait. *Business and Society* 38(1): 109~125.
- Scholes M. S., M. A. Wolfson, M. Erickson, E. L. Maydew and T. Shevlin. 2009. *Taxes and Business Strategy*. Pearson Prentice Hall. (4th ed.)
- Stulz, R. 1988. Managerial Control of Voting Rights: Financing Policies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pp.25-54.
- Waddock, Sandra A, and Samuel B, B. Graves. 1997. The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Link. *Management Journal*, 18(4): 303~319.
- Wang, X.. 2011. Tax Avoidance, Corporate Transparency, and Firm Value. *American*

- Accounting Association Annual Meeting-Tax Concurrent Sessions.
- Wilson, R. 2009. An examination of corporate tax shelter participants. The Accounting Review 84(3): 969~999.
- 강정연. 2012.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성천, 박래수.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결정요인과 기업가치. 세무와 회계저널 제12권 제2호: 105~134.
- 국찬표, 강윤식.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및 기업가치. 한국증권학회지 제40권 5호: 713~748
- 기은선.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제29권 제2호: 107-136
- 나영. 홍석훈. 2011. 기업규모에 따른 CSR활동별 성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0권 제5호. 125~160.
- 박종일, 전규안, 남혜정. 2012. 비정상기업에서 감사품질이 이익의 구성요소와 부채조달비용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54권 제1호. 283-317
- 신민식, 김수은, 김병수.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금융공학연구 제10권 제1호: 99~125.
- 이한득, 박상수, 최수미. 2001. 한국기업의 재무활동 역량서베이. 엘지경제연구 원보고서
- 장지인, 최현섭. 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재무성과와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2호: 633~ 648.
- 최현섭. 2009. 지배구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경영정보연구. 제29권 제4호: 45~66.